



열여덟번째 이야기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린다

[선교지 선교사역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아웃리치]



루체팀 인천공항 출발

루체 찬양팀과 함께 아웃리치 물류와 포토 및 영상 담당으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를 다녀왔다. 매

번 그랬듯이 이번 아웃리치도 영적 전쟁이 만만치는 않았고 출발 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었다. 출발을 앞두고 많은 분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고,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단체 항공 티켓 예약 취소로 인해 몇 분은 상당한 추가 비용을, 몇 분은 따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했다.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겪으셨을 것이다. 누구나 당한다는 ESTA 발급 사기, 신속 항원 검사지 영어 출력 문제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리치 팀장이신 이춘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루체 단원들은 오프라인과 줌을 통해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모임으로 기도하기에 더욱 힘을 썼었고, 늘 하던 우스갯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뜬다는 말처럼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어김없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이륙했다.



포장하는 한나와 진혁

개인적으로 출발 전날 오히려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들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진혁이와 한나가 루체 팀원들에게 나눠 드리기 위해 직접 간식을 구입하여 밤늦게까지 포장하면서 그들도 이번 아웃리치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드디어 5월 26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두 번의 경유와 20여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땅을 밟는 순간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했다. 가장 중요한 루체 공연에 필요한 북 다리 등이 들어 있던 공동 짐 두 개가 없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를 뒤에 찾긴 했지만) 이미 현지 시각으로 자정이 가까워 더 이상 공항에서 지체할 수가 없어 유나이티드 항공 관계자와 협의 후 일단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과테말라 한인교회 숙소로 이동을 했다. 공항에서 15분 남짓 버스로 이동 후 도착한 한인교회 숙소에는 미리 도착하셨던 정동기 목사님과 하영민, 이승희 집사님 부부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특별히 김혜자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육개장을 끓여 놓고 계셨다. 이미 자정이



배식해주는 김혜자 선교사

넘었지만 이역만리 과테말라에서 먹은 육개장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힘든 일과 긴 비행의 피로를 깨끗이 잊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차 적응과 여독을 풀 여유도 없이 졸업식과 루체 찬양팀의 리허설이 시작되었고,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과테말라에서의 세 번의 공연과 졸업식을 통해 260여 명의 졸업식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안전사고와 불상사가 없이 과테말라의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다. 과테말라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남관우 선교사님의 안내로 과테말라 BEE Korea 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역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역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듣고, 모두 합심하여 남관우 선교사님과 선교사역과 과테말라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테말라는 명목상 가톨릭이 70%, 개신교가 30%인 기독교 국가이지만 행위 구원의 성향이 강하며 마야 토속 신앙과 가톨릭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산 시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에 과테말라는 바른 복음과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BEE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말씀 배움에 목말라하는 것 같았다.



과테말라 BEE센터



산 시몬

이후 버스로 국경을 넘어 엘살바도르로 이동하였고, 현지 교회에서 또 한 번의 공연과 졸업식 행사를 통해 40여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졸업식 행사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엘리자베스 목사님을 통해 엘살바도르 BEE Korea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다 같이 축복하고 기도로 이번 아웃리치의 모든 공식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였다.



엘리자베스 목사



엘살바도르 졸업식

아무도 예측 못 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진행하던 사역들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일하고 계셨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과테말라 땅에 디모데와 같은 남관우 선교사님을 통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프리카 이후 또 한 번 과테말라를 통해 BEE 사역의 진면목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지면을 통해 이번 졸업식과 아웃리치 팀을 위해 현지에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남관우, 김혜자 선교사님, 조문상 사무총장님, 박은형 선교사님과 정진희 단장님을 비롯한 루체 단원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또한 동행하신 현지 선교사님, 과테말라 한인교회 김상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글쓴이 최창한 예비 선교사]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으며, 예배 촬영과 부서별 영상 제작과 송출 등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주일학교 교사와 SMTC 수영로교회 선교사 훈련 학교 간사로 헌신하고 있다.

올해 BEE Korea 선교사로 수영로교회에서 파송이 이루어져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하고 있다. 아내 최경선 집사와 아들(13세)과 딸(6세)이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산상수훈**

(얀 브뤼헬, 동판 유화, 26.7 x 36.8,
미국 LA 게티 미술관)

플란데런(벨기에 북방)의 화가인 얀 브뤼헬(Jan Brueghel de Oude, 1568-1625)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신약성경의 한 장면이다.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센터 몇 명을 제외한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하늘의 소리는 들리는 것이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하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7월 2일(토) 2022년 "All & One"이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됩니다. BEE 가족 모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려요!!
3. 여름 방학 특강!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월제)’, ‘고린도전서(화제)’, ‘교리론1(목제)’, ‘히브리서(토오)’와 대면으로 진행하는 ‘라구3 인도자 강습회(토오)’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문의 02-822-9480